

여수시, 민·관협력 '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상·하화도 첫 준공



여수시가 4개 기관과 민·관협력사업으로 화정면 상화도 마을회관과 하화도 상하도 보건진료소 2개소에 비상소화전함 설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등 4개 기관 협약 소방안전 강화 주민 스스로 화재 초기 진화·확산 방지함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화정면 상화도에서 '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설치'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여수시 사회복지과 서정신 과장과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신윤오 본부장, 여수소방서 현장지휘단 최남식 단장,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나중순 관장, 화정면장과 이장,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교육 등 섬 주민의 소방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한국남동발전 신윤오 본부장은 "오늘 준공식으로 우리 기업이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주민의 안전복지사업을 또 하나 실천해 매우 기쁘다"며 "4개 기관이 협력해 앞으로 더 많은 섬 주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

오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낳는다"며, "뜻깊은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 감사 드리며, 사용법을 잘 익혀 위급상황 시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정면 상화도 김재곤 이장은 "섬마을의 열악한 특성을 알고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신 4개 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한방에 없앨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 우리 아이가 위험합니다"

광양시,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 과도한 선팅 규제

광양시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과도한 선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간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해

이 통학버스의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기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이는 2018년 7월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 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

이 통학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표지, 어린이보호표시등, 하차확인장치 등 통학버스 내 의무 안전장치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박양군 교통과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 제도를 안내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활동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군, 하나금융그룹 추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모 도전

보성군이 하나금융그룹에서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공모에 도전한다.군은 지난 2월 조성면 소재 초동진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공모 사업비로 7억 원 가량을 신청했다. 최종 대상지 선정은 오는 4월 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초동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보성군

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7억 3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민간 협력 사업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우수한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 예산과 하나금융그룹의 지원금으로 추진된다. 보성=김택순기자

'생태도시 순천 에너지정책 이슈포럼' 개최 순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과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위원을 초청해 생태도시 순천 에너지정책 이슈포럼을 개최했다. 생태도시 순천 에너지정책 이슈포럼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민갈등과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1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과제에 대해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박사의



한 정보공개, 소통을 통해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연구기획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속의적 시민참여형 지역 에너지계획, 주민참여와 이익 공유 조례 등의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귀농·어 창업 주택자금 '전국최대'

고흥군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사업에 총 122명을 선정, 전국 최대 규모인 21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고흥군은 전라남도 배정액 대비 귀농자금 470억원 중 69억원(14.7%), 귀어자금 354억원 중 147억원(41.5%)을 차지하여 시·군 가운데 최대 금액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하며,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국고 융자)을 받을 수 있다. 고흥=김택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